

#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현황과 분석<sup>1)</sup>

흥기표(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목 차〉

- 표 목차
- I. 머리말
- II. 목민관 비석(군) 일반현황
- III. 소재지 분류 및 분석
- IV. 비제 분류 및 분석
- V. 비문의 유무 현황 및 분석
- VI. 목민관 비석(군)의 보존 및 자원화 방안
- VII. 맺음말
- 참고문헌

## □ 표 목차

- <표 1> 제주 목민관 비석 직위별 인원 및 수량
- <표 2> 제주 목민관 비석 직위별 수량 분류(단위 : 기)
- <표 3> 제주 목민관 비석 인물별 분류(1인 2기 이상)
- <표 4> 제주 목민관 비석 인물별 분류(1인 1기)
- <표 5> 목민관 비석의 시기별 분류
- <표 6> 목민관 비석의 해당 목민관 재임 시기
- <표 7> 제주 목민관 비석(군) 해당 목민관(부임순)
- <표 8>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2기 이상 소재)
- <표 9>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1기 소재)
- <표 10>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제주시)
- <표 11>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서귀포시)
- <표 12> 비제 호칭 분류(수량 순)
- <표 13> 비제 호칭 분류(선정비류)

1) 이 논문은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공모 선정으로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 보고서를 요약하였음. 또한 향토사학자인 김익수 선생님의 감수를 거쳤으며, 특히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보존과 자원화 방안’ 단원에 대해서는 한라일보 이윤형 논설위원의 원고를 요약하였음.

<표 14> 비제 호칭 분류(권학/기념비류)

<표 15> 비문의 형식 분류

<표 16> 비문의 내용 분류

## I. 머리말

현재 전근대 제주사 연구는 문헌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관찬 정사는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등 역사지리지 및 「남명소승」, 「남사록」, 「지영록」, 「속음청사」 등 개인 문집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문헌을 통해 전근대 제주사의 실체가 규명되고 있다.

이에 반해 1차 사료라는 중요한 위상을 지녔음에도 금석문을 통해, 특히 비석을 통해 제주사의 고증, 보완, 사실 규명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전근대 시대 비석(군)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어느 지역에 몇 기의 비석이 있는지, 그 비석이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언제 건립되었는지, 그 비석이 뜻하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등등 문화재(자료)로서의 그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미비한 상태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비석의 규모를 비롯한 기초적인 제원을 소개한 책자는 이미 발간된 바 있다.<sup>2)</sup> 하지만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건비(建碑)의 역사적 배경 및 해당 수령과 제주민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와 분석’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제주도 전역의 목민관 비석(군) 총량 파악 및 각급별 비교 분석

둘째 목민관 비석(군)의 비문(비명, 음기 등)에 대한 정확한 글자 고증 및 분석

셋째 목민관 비석(군)의 보존 및 자원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고는 금석문을 통해 전근대 제주사 연구의 단초를 여는 첫 출발이기도 하다. 또한

---

2) 제주의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1978년 홍순만이 1년에 걸쳐 「제주신문」에 연재한 비(총 38회)가 사실상 그 시초이다. 이는 2013년 『제주의 비』(제주문화)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지자체 등에서 발간한 서적으로는 『북제주군 비석총람』(북제주군, 2001), 『제주시 비석일람』(제주시, 2002), 『우리 고장의 비석들(1,2)』(서귀포문화원, 2009) 등이 있다. 마애명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과 제주동양문화연구소가 1999년 펴낸 『제주도마애명』 및 2014년 한라산연구소에서 펴낸 『한라산의 마애명』이 있다. 그 밖에 개인으로는 이영배, 이창훈, 현행복, 고영철, 문순덕, 장거수, 백종진, 김현주 등이 금석문 관련 글을 내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풍부한 문화재(자료)를 확보할 뿐 아니라, 이를 해당 마을별로 역사문화 자원화 하여 전통 중시의 인문관광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한층 심화된 제주문화 발전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II. 목민관 비석(군) 일반현황

### 1. 직위별 분류

현재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목민관 비석은 총 69명, 148기로 파악되었다.<sup>3)</sup> 이 중 목사(사상)의 선정비가 전체 목민관 비석의 72%를 차지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부임했던 판관 및 현감의 비석은 10% 이내의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 목민관 비석의 직위별 인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사 36명(106기), 판관 9명(14기), 현감 9명(13기), 군수 5명(5기), 만호 5명(6기), 어사 2명(3기), 기타 3명(3기). 이상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표 1> 제주 목민관 비석 직위별 인원 및 수량

구분	목사	판관	현감	군수	만호	어사	기타	총계
인원	36	9	9	5	5	2	3	69(명)
비율	52	13	13	7	7	3	4	100(%)
수량	106	14	11	5	6	3	3	148(기)
비율	72	10	7	3	4	2	2	100(%)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비석을 통해서 파악되는 제주의 대표 목민관은 제주목사임을 알 수 있다. 제주목사는 정3품 당상관으로 임명되었다. 조선시대(1392~1910) 제주목사를 역임한 사람은 총 286명인데,<sup>4)</sup> 이 중 현재 남아 있는 목사의 선정비는 36명으로 전체의 약13%에 불과하다. 그러나 36명 중 목사 불명비 3기를<sup>5)</sup> 제외하면 사실상 33명의 목사

3) 필자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제주도 일원에 산재해 있는 목민관 비석(군)을 현장 답사하여 그 소재지 및 수량을 파악하였다. 비석 총량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비문에 대한 글자 고증, 해석, 분석의 내용은 필자가 2015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낸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보고서(45쪽~147쪽)를 참고 바람.

4) 홍순만,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연구』(창간호), 1991.

5) 조천읍 북촌리 소재 비석(군) 중 ‘목사000청덕비’, ‘사상이공00사비’, ‘상국윤공00청백추사비’의 3기는 비체에 목사(사상)라고 새겨 있어 목사임이 확실한데, 성명 부분이 마모되어 목사 불명비로 분류된다.

선정비가 있다. 뿐만 아니라 33명 중 조선전기의 목사는 이수동 목사<sup>6)</sup> 1명뿐이다. 또 이수동 목사의 선정비는 1911년 건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전기 목사 선정비는 없다. 결국 32명의 목사 선정비는 모두 조선후기 목사의 것이며, 17세기 3명(심연, 김수익, 윤계), 18세기 6명(이형상, 김정, 홍중징, 김몽규, 양세현, 김영수), 19세기 23명(허명~이규원)으로 19세기의 목사들 선정비가 전체 목사 선정비의 2/3에 달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남아 있는 목사 선정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화북비석거리에 있는 심연 목사비로 추정되며, 가장 최근의 것도 역시 화북비석거리에 있는 이규원 목사비이다. 심연 목사는 1638년 부임했으며, 이규원 목사는 1894년 이임하였다. 따라서 1638년부터 1894년의 256년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는 총 154명인데, 이 중 불명비 3기를 제외한 32명의 목사 선정비가 세워졌다. 산술적으로 추정하면 대략 5명 중 1명의 제주목사 선정비가 세워진 셈인데, 특히 19세기 목사 선정비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그 이유는 17C 후반부터 18C에 걸쳐 대대적인 수령 선정비에 대한 철거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sup>7)</sup> 따라서 최소한 정조 이전까지 세워졌던 선정비는 대부분 철거된 상태로 판단된다. 그 이후 세도정치로 접어든 순조 때부터 다시 선정비가 세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남아 있는 선정비의 대다수는 19C의 비석들인 것이다.

## 2. 직위별 수량 분류

현재 제주에 산재한 총 148기의 목민관 비석 중 1인이 2기 이상 보유한 인물은 23명으로 총 102기가 있다. 인물로는 총 69명 중 23명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하지만 비석 총수로는 148기 중 102기로 1인 2기 이상의 비석이 전체의 69%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목민관에 대해 제주 곳곳에서 중복된 비석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해당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설립되었겠지만, 제주 전역을 휩쓴 흉년 및 가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제주 전역에서 아사자 등이 발생하여 구휼을 이루다보니 곳곳에 그를 기리는 선정비가 중복되어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1인 1기의 인물은 46명으로 총 46기가 있다. 전체 인물의 67%에 해당하지만 비석 총수로는 31%에 불과하다. 물론 이 경우 이미 파손, 망실, 불명 등의 이유로 버려지거나 매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이들의 비석이 1인 1기라고 보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상 직위별로 목민관 비석의 수량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6) 이수동 목사는 1526년(중종 21) 삼성혈에 처음으로 홍문과 혈비를 세우고 주변에 돌로 담을 쌓아 성역화 하였으며, 고,양,부 삼성의 후손들에게 혈제를 지내도록 한 인물이다.  
7) 1698년(숙종 24) 외방에 생사(生祠) 건립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10월 6일) 이후, 18C 들어 지방에서 수령의 선정비나 생사당 건립 금지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진다. 특히 1725년(영조 1) 수령의 비석이나 생사당 건립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1739년(영조 15)에는 강력한 금령이 내려졌다.

<표 2> 제주 목민관 비석 직위별 수량 분류(단위 : 기)

직위	1인 2기 이상		1인 1기		총계	
	인원	수량	인원	수량	인원	수량
목사	17	87	19	19	36	106
판관	3	8	6	6	9	14
현감	1	3	8	8	9	11
군수	-	-	5	5	5	5
만호	1	2	4	4	5	6
어사	1	2	1	1	2	3
기타	-	-	3	3	3	3
총 계	인원/수량	23(명) / 102(기)	46(명) / 46(기)	69(명) / 148(기)		
	비율	33(%) / 69(%)	67(%) / 31(%)	- / -		

### 3. 인물별 분류

현재 제주도내에 산재한 목민관 비석 중 가장 많은 수의 비석이 남아 있는 인물은 순조 때의 윤구동 목사이다. 1815년 5월에 부임하여 1817년 10월에 이임한 그의 선정비는 제주 전역에 총 13기가 남겨져 있어 전체 목민관 비석의 8.8%를 차지한다.<sup>8)</sup> 그 뒤를 이어 고종 때의 양현수 목사로 총 10기가 전하고 있다.<sup>9)</sup> 현종 때 구재룡 목사<sup>10)</sup>와 장인식 목사<sup>11)</sup>는 각각 8기가 남아 있고, 또한 철종 때 백희수 목사<sup>12)</sup>와 고종 때의 정기원 목사<sup>13)</sup>, 백낙연 목사<sup>14)</sup>는 각각 6기가 남아 있다. 이상 7명의 목사비가 총 57기로 전체 목민관 비석의 38.7%에 해당한다. 여기에 현종 때 이원달 목사<sup>15)</sup>, 철종 때 이현공 목사<sup>16)</sup> 및

- 8) 윤구동 목사의 선정비 13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관아, 화북비석거리, 제주대박물관, 조천 북촌리, 선흘리, 와산리, 구좌 김녕리, 외도동 월대, 애월 구엄리, 애월리(2기), 서귀 토평동, 성산 수산리이다. 이처럼 그의 선정비는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다.
- 9) 양현수 목사의 재임기간은 1864.03 ~ 1866.08이다. 그의 선정비 10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관아(2기),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제주대박물관, 조천 신촌리, 외도동 월대, 애월 애월리, 한경 판포리, 구좌 김녕리이다.
- 10) 구재룡 목사의 재임기간은 1839.03 ~ 1841.03이다. 그의 선정비 8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자연사박물관(3기), 화북비석거리, 도남동 복지공원, 구좌 김녕리, 조천 선흘리, 와산리이다.
- 11) 장인식 목사의 재임기간은 1848.03 ~ 1850.06이다. 그의 선정비 8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향교, 삼성혈, 화북비석거리, 조천 신촌리, 북촌리, 와산리, 애월 구엄리, 애월리이다.
- 12) 백희수 목사의 재임기간은 1851.07 ~ 1853.12이다. 그의 선정비 6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관아, 화북비석거리, 조천비석거리, 조천 신촌리, 북촌리, 대정 보성초교이다.
- 13) 정기원 목사의 재임기간은 1863.01 ~ 1864.03이다. 그의 선정비 6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관아, 조천비석거리, 조천 대흘리, 구좌 김녕리, 애월 애월리, 한경 판포리이다.
- 14) 백낙연 목사의 재임기간은 1877.01 ~ 1881.05이다. 그의 선정비 6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향교, 자연사박물관, 제주대박물관, 조천 신촌리, 대흘리, 한림 동명리이다.
- 15) 이원달 목사의 재임기간은 1837.11 ~ 1839.03이다. 그의 선정비 4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자연사박물관, 화북비석거리, 조천비석거리, 구좌 김녕리이다.

고종 때 송상순 관관<sup>17)</sup> 선정비도 각각 4기가 남아 이들 총 10명의 목민관 선정비가 총 69기(46.9%)로 전체 목민관 비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편 3기가 남아 있는 목민관은 총 7명으로 다음과 같다. 영조 때 김정 목사<sup>18)</sup>, 순조 때의 심영석 목사<sup>19)</sup>, 이행교 목사<sup>20)</sup>, 한응호 목사<sup>21)</sup>, 헌종 때 이의식 목사<sup>22)</sup>, 고종 때 조희순 목사<sup>23)</sup>, 송두옥 현감<sup>24)</sup>. 2기가 남아 있는 목민관은 총 6명으로 숙종 때 제주별건어사로 파견된 황구하<sup>25)</sup>, 순조 때 허명 목사<sup>26)</sup>, 고종 때의 홍규 목사<sup>27)</sup>와 김기홍 관관<sup>28)</sup>, 고경준 관관<sup>29)</sup>, 강석오 만호<sup>30)</sup> 등이 그들이다. 이상 2~3기가 남아 있는 목민관은 총 13명으로 33기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1인이 2기 이상 남아 있는 목민관은 총 23명으로 102기, 이는 전체 목민관 비석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 3>과 <표 4>는 1인 2기 이상과 1인 1기로 나누어 목민관을 제시한 도표이다.

한편 특이한 성격의 비석도 찾아볼 수 있다. 흥선대원군의 친형인 이최응의 불망비는 그가 제주에 들어온 적은 없지만 1877년(고종 14)부터 1878년 두 해에 걸친 극심한 흉년에 호남의 사창미로서 제주민을 구휼한 덕분에 세우게 된 것이다.<sup>31)</sup> 임현대 목사는 1862년(철종 13) 임술년 농민봉기(‘강제검’ 난)시 농민군에 곤욕을 당하고 조정에서 파직 당했는데, 화북비석거리에 그의 거사비가 세워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 16) 이현공 목사의 재임기간은 1850.06 ~ 1851. 07이다. 그의 선정비 4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향교,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화북비석거리이다.
  - 17) 송상순 관관의 재임기간은 1879.02 ~ 1880.10이다. 그의 선정비 4기가 소재한 곳은 다음과 같다. 자연사박물관, 도남동 복지공원, 조천 신촌리, 대흘리이다.
  - 18) 김정 목사의 선정비 3기는 오현단, 화북포구, 외도동 월대에 있다.
  - 19) 심영석 목사의 선정비 3기는 제주향교, 자연사박물관, 조천 신촌리에 있다.
  - 20) 이행교 목사의 선정비 3기는 제주향교, 삼성혈, 애월 애월리에 있다.
  - 21) 한응호 목사의 선정비 3기는 제주목관아(2기), 애월 하가리에 있다.
  - 22) 이의식 목사의 선정비 3기는 제주대박물관, 조천비석거리, 애월 애월리에 있다.
  - 23) 조희순 목사의 선정비 3기는 제주목관아, 제주향교, 한림 동명리에 있다.
  - 24) 송두옥 현감의 선정비 3기는 대정향교, 서귀 토평동, 신호동에 있다.
  - 25) 황구하 어사의 선정비 2기는 성산 수산리, 남원 남원2리에 있다.
  - 26) 허명 목사의 선정비 2기는 도남동 복지공원, 애월 애월리에 있다.
  - 27) 홍규 목사의 선정비 2기는 제주향교, 화북비석거리에 있다.
  - 28) 김기홍 관관의 선정비 2기는 제주대박물관, 한경 판포리에 있다.
  - 29) 고경준 관관의 선정비 2기는 화북비석거리, 한경면사무소에 있다.
  - 30) 강석오 만호의 선정비 2기는 한림 명월성지, 한림 월림리에 있다.
  - 31) 제주목관아에 있는 ‘영상이공최응영세불망비’는 백낙연 목사 때 건립(1880)되었는데, 비 후면에 장문의 비문이 새겨 있어 당시 실정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 관관 송상순이 글을 짓고, 진사 김양수가 썼는데 제주 전역에 있는 목민관 비석 중 최대 크기(비좌 포함 2.15m)의 비석이다.

<표 3> 제주 목민관 비석 인물별 분류(1인 2기 이상)

직위	성명	수량	직위	성명	수량
목사	윤구동	13	목사	김정	3
"	양헌수	10	"	심영석	3
"	구재룡	8	"	이행교	3
"	장인식	8	"	한응호	3
"	백희수	6	"	이의식	3
"	정기원	6	"	조희순	3
"	백낙연	6	현감	송두옥	3
"	이원달	4	어사	황구하	2
"	이현공	4	목사	허명	2
관관	송상순	4	"	홍규	2
•	•	•	관관	김기홍	2
•	•	•	"	고경준	2
•	•	•	만호	강석오	2
소계	10(명)	69(기)	소계	13(명)	33(기)
-	-	-	총계	23(명)	102(기)

<표 4> 제주 목민관 비석 인물별 분류(1인 1기)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목사	이수동	목사	000	현감	강재오
"	심연	"	윤00	군수	김몽구
"	김수익	"	이00	"	강우진
"	윤계	관관	김영업	"	민창호
"	이형상	"	이식	"	채수강
"	홍중징	"	강재의	"	채구석
"	김몽규	"	강인호	만호	강이호
"	양세현	"	김응우	"	장이구
"	김영수	"	서련	"	양정훈
"	이원팔	현감	권극중	"	강만식
"	박장복	"	위혁만	어사	심동신
"	채동건	"	김재호	영상	이최응
"	임헌대	"	박상을	조방장	홍재욱
"	심현택	"	장시열	공마감	오영
"	심원택	"	신상흠	•	•
"	이규원	"	강이진	<총계>	46명/46기

#### 4. 시기별 분류

현재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목민관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은 화북비석거리에 있는 심연 목사의 비로 추정된다. 심연은 인조 때의 제주목사로 그의 재임기간은 1638년(인조 16) 6월부터 1640년 9월까지이다. 현재의 비면은 상당량 마모되어 후면 또는 좌우측면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건립연대를 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가 떠난 후 건립되었다고 가정하면 1641년경에 해당된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374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목민관 고비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천 비석거리에 있는 김수익 목사비는 그로부터 10여 뒤인 165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재임기간은 1649년(인조 27) 9월부터 1651년 7월까지이다. 역시 비면이 상당량 마모되어 건립연대를 확인할 길이 없고, 그가 떠난 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1652년에 해당된다. 지금으로부터 363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목민관 비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면에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민관비는 대정향교에 있는 권극중 현감비이다. 전면에 ‘현감권공극중준성권학비’라고 되어 있고, 후면에 ‘강희 원년 임인 칠월이십삼일 립’이라고 건립연대가 새겨 있다. 1662년(현종 3) 7월 23일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C 중엽, 지금으로부터 353년 전에 건립되어 현재 건립연대가 확인되는 목민관 고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18C 초반 성산읍 수산리에 황구하 어사비가 건립된다. 전면에 ‘별견어사 황공구하지성진민비’라 되어 있고, 전면 왼쪽에 ‘옹정 이년 갑진 윤사월 일 립’이라 되어 있어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24년 윤4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구하 어사비는 남원 2리 운주악 동편에도 소개하는데 비면이 상당량 마모되어 건립연대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산읍 수산리의 비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sup>32)</sup>

현재 제주도 전역의 목민관 비석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19C에 건립되었다.<sup>33)</sup> 총 148기 중 126기가 이에 해당하며 비율로는 85.1%에 달한다. 18C 이전과 20C 이후 비석은 각각 9기로 12.2%이다. 비면이 마모되어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건립연대를 새겨놓지 않은 비석으로 추정되는 비석은 총 4기로<sup>34)</sup> 2.7%에 해당한다.

32) 황구하 어사가 제주에 들어온 시기는 1716년(숙종 42) 2월경이다. 그는 1년간 제주에 머물면서 지난 1713년과 1715년 제주를 휩쓴 흉년으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진휼에 전력을 다했다. 제주민 진휼 뿐 아니라 진상품 및 환곡미의 감세까지 건의하여 승낙을 얻고 과거를 시행하여 고처량(高處亮) 등 3인을 급제시켰다.

33) 18C 이전의 목민관 비석이 극소수 남는 데 그친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숙종, 영조, 정조 때 강력한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수령 선정비 및 생사당 건립 금지령의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중 다음에서 확인된다. 1698년(숙종 24) 10월 6일(정미), 1707년(숙종 33) 9월 11일(경신), 1718년(숙종 44) 4월 2일(경진), 1725년(영조 1) 1월 23일(임술), 1735년(영조 11) 1월 10일(신사), 1739년(영조 15) 6월 17일(임진), 1764년(영조 40) 2월 18일(경자), 1769년(영조 45) 9월 5일(갑신), 1789년(정조 13) 6월 19일(계유).

34) 연대 추정이 불가능한 비석은 총 4기로 이 중에는 북촌리 소재 비석군이 3기로 가장 많다. 그



이상 각 시기별로 선정비의 해당 목민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도표로 소개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17C : 3기, 심연(화북비석거리), 김수익(조천비석거리), 권극중(대정향교).

18C : 6기, 위혁만(남원2리), 황구하2(남원2리, 수산리), 김정(화북포), 김몽규(제주향교), 윤계(제주목관아).

19C : 126기, 허명2(도남동, 애월리) ~ 이규원(화북비석거리)

20C : 8기, 채수강(성읍리), 이수동(삼성혈), 이형상(삼성혈), 양세현(삼성혈), 양현수(삼성혈), 서련(김녕리), 채구석(중문 천제연), 홍중징(제주향교)

21C : 1기, 신상흠(남원2리)

<표 5> 목민관 비석의 시기별 분류

구분	17C	18C	19C	20C 이후	추정 불명	총계
수량	3	6	126	9	4	148
비율	2	4.1	85.1	6.1	2.7	100

총 148기의 목민관 비석 중 1인 1기든 1인 2기 이상이든 해당 목민관은 총 69명이다. 이들의 재임 시기를 살펴보면 역시 조선후기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전기는 2명(2.9%)으로 16C의 서련 관관과 이수동 목사가 그들이다. 이들의 비는 각각 구좌읍 김녕사굴과 제주시 삼성혈에 소재하여 해당 명소와 관련 깊은 목민관이다. 그런데 이 2기의 비석 건립 연대는 20C로 각각 1937년, 1911년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세워진 고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의 2명을 제외한 67명의 목민관(97.1%)이 조선후기의 목민관으로 판단된다. 17C는 총 4명으로 심연, 김수익, 윤계 목사와 권극중 현감이다. 18C는 8명으로 이형상, 김정, 홍중징, 김몽규, 양세현, 김영수 목사와 황구하 어사 및 위혁만 현감이다. 19C는 허명, 윤구동 목사 이래 채구석 군수까지 총 50명에 달한다. 이 외에 19C 추정 1명<sup>35)</sup>과 20C 1명<sup>36)</sup>이 있다.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목사 추정비 3기는<sup>37)</sup> 재임 기간 추정 불명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며, 목민관 비석의 해당 목민관을 부임순으로 정리한 것이

이유는 성명이나 이름이 마모되어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비석은 목사 또는 사상으로 비제가 시작되어 목사비임은 확실하다(목사000청덕비, 사상이공00사비, 상국윤공00청백추사비). 이 외에 화북비석거리에 있는 조방장 홍재육 비는 19C 비석으로 추정되나 문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건립연대도 새겨 있지 않아 연대 추정이 불가능하다.

35) 화북 비석거리에 있는 조방장 홍재육은 비면 상태 등으로 추정해 볼 때 19C 인물로 판단된다.

36) 성읍리 일관현 옆에 있는 정의군수 채수강은 재임기간이 1902년~1907년이므로 20C초 인물이다.

37) 본고 주34 참조.

<표 7>이다.

<표 6> 목민관 비석의 해당 목민관 재임 시기

시기	16C	17C	18C	19C	19C 추정	20C	추정 불명	총계
수량	2	4	8	50	1	1	3	69
비율	2.9	5.8	11.6	72.5	1.4	1.4	4.4	100

<표 7> 제주 목민관 비석(군) 해당 목민관(부임순)

연번	직위	인물	부임	연번	직위	인물	부임
1	관관	서런	1515. 04 (사망?)	36	만호	양정훈	1851. 03
2	목사	이수동	1526. 04	37	목사	백희수	1851. 07
3	목사	심연	1638. 06	38	만호	강만식	1852. 03
4	목사	김수익	1649. 09	39	목사	채동건	1855. 08
5	현감	권극중	1653. 06	40	현감	강이진	1858. ??
6	목사	윤계	1672. 05	41	어사	심동신	1859. 11
7	목사	이형상	1702. 06	42	목사	임현대	1862. 02
8	어사	황구하	1716. 02	43	목사	정기원	1863. 01
9	현감	위혁만	1716. 03	44	목사	양현수	1864. 03
10	목사	김정	1735. 04	45	목사	조희순	1868. 10
11	목사	홍중징	1738. 10	46	군수	김몽구	1870. 09
12	목사	김몽규	1752. 12	47	관관	김기홍	1871. 12
13	목사	양세현	1771. 01	48	군수	강우진	1876. 01
14	목사	김영수	1778. 12	49	목사	백낙연	1877. 01
15	목사	허명	1814. 04	50	영상	이최응	1879. ??
16	목사	윤구동	1815. 05	51	관관	송상순	1879. 02
17	목사	이원팔	1822. 01	52	현감	강재오	1880. ??
18	현감	김재호	1825. 02	53	목사	심현택	1883. 08
19	목사	심영석	1826. 06	54	관관	고경준	1883. 08
20	현감	박상울	1827. 02	55	목사	홍규	1884. 12
21	목사	이행교	1827. 08	56	목사	심원택	1886. 05
22	관관	이식	1829. 06	57	관관	강인호	1888. 07
23	목사	한응호	1832. 02	58	만호	강석오	1890. 06
24	관관	김영업	1834. 04	59	목사	이규원	1891. 09
25	현감	장시열	1834. 06	60	관관	김응우	1892. 09
26	목사	박장복	1834. 07	61	현감	송두옥	1893. 05
27	만호	강이호	1837. 08	62	군수	민창호	1894. ??
28	목사	이원달	1837. 11	63	군수	채구석	1895. ??
29	목사	구재룡	1838. 03	64	군수	채수강	1902. 08
30	만호	강이구	1842. 02	65	공마	오영	?
31	목사	이의식	1846. 02	66	조방	홍재육	?
32	현감	신상흠	1848 (추)	67	목사	윤00	?

33	목사	장인식	1848. 03	68	목사	이00	?
34	관관	강재의	1848. 08	69	목사	000	?
35	목사	이현공	1850. 06	-	-	-	-

### Ⅲ. 소재지 분류 및 분석

#### 1. 현황 및 행정구역별 분류

현재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총 148기의 목민관 비석(군)은 총 38장소에 분포되어 있다.<sup>38)</sup> 이 중 2기 이상의 비석(군)이 소재하는 곳은 27장소로 총 137기인 93%가 있으며, 1기의 비석이 소재한 곳은 11장소에 11기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목민관 비석의 대다수는 ‘비석거리’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이 조선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표 8>에서 <표 11>은 목민관 비석(군)의 소재지를 수량 순 및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제시한 도표이다.

<표 8>과 <표 9>는 목민관 비석(군)의 소재지를 2기 이상 소재와 1기 소재한 수량 순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이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석(군)이 분포하는 곳은 화북 비석거리(12기)<sup>39)</sup>이며 제주목관아<sup>40)</sup>, 제주향교<sup>41)</sup>, 자연사박물관의 비석(군)<sup>42)</sup>이 각각 11기로 그

38) 추자면에 소재한 ‘군수민공창호영세불망비’는 1894년에 건립된 비인데, 민창호는 당시 (전라도) 완도군수로 제주 삼읍의 목민관은 아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수량 및 소재지는 147기 37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39) 현재 화북 비석거리에는 심연, 윤구동, 이원달, 장인식, 이현공, 백희수, 구재룡, 임헌대, 홍규, 이규원 등 목사의 비와 고경준 관관, 홍재욱 조방장의 비, 그리고 비 전면이 거의 마멸돼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비 1기(일명 ‘제주의 망비’) 등 총 13기가 있다. 물론 지금 있는 이 비가 전부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0) 제주목관아 비석(군)은 훈순만의 「비」가 연재될 당시인 1979년까지는 총 6기만 소재하고 있었다. 이최웅, 양현수(영세불망비), 정기원, 백희수, 조희순, 강재의 비가 그것이다. 그러나 제주목관아가 복원되고 나서 2003년에 윤계(건입동 동문로 동북쪽 골목 포장시 출토), 윤구동(건입동사무소 출입구 왼쪽), 한응호(거사대)(오라2동 종합운동장 서쪽), 양현수(제폐비)(안덕면 창천리 454-1번지 도로변 돌담), 한응호(홀민선정비)(화북공업단지내 구 한일여객차고지)비 등 5기가 이설되어 현재는 총 11기가 소재하고 있다.

41) 제주향교 비석(군)은 1978년까지 총 10기의 비석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외에 “이사상헌(공)[李使相玄(功)]”이라고 시작되는 상단부만 있는 파손된 비 1기가 더 있다. 또 1982년에는 ‘홍사상증정 ○설청금비’를 매비하고, ‘사상홍공증정입청금안비’라는 새로운 비를 세웠다.

42)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비석(군)은 총 11기 중 다음의 3기는 애월면 구엄리(원동산)에 소재하던 비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사상양공현수청덕홀민비와 사상구공재룡홀민선정비는 좌측면에 엄장면(嚴莊面)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상심공영석청덕선정비는 후면에 귀일면(貴日面)과 엄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구엄리에 있던 비석이 현재의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5기 이상의 다수 비석(군)을 형성하고 있는 곳과 2~3기로 소량 비석(군)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각각 13장소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과 <표 11>은 목민관 비석(군)의 현재 행정구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 전역이 127기인 8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21기<sup>43)</sup>가 소재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은 일반 행정동 66기, 조천읍 31기, 기타 30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제주 원도심 지역은 약 40여 기(제주목관아, 제주향교, 삼성혈, 오현단, 자연사박물관)가 소재하여 목민관 비석(군)의 주요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읍면 지역으로는 조천읍이 31기나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이 조선시대 주요 교통 요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sup>44)</sup> 한림읍은 만호비가 다수 건립되어 있어 타 지역과 대비된다.<sup>45)</sup>

<표 8>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2기 이상 소재)

연번	비석(군)	수량	비고
1	화북 비석거리	12	제주목 관문
2	제주 목관아	11	관아(동헌)
3	제주 향교	11	교육(권학)
4	자연사 박물관	11	보수(이건)
5	조천 비석거리	8	제주목 관문
6	애월 애월리사무소	8	방어진지
7	삼성혈	7	(탐라)유적
8	조천 북촌리	7	교통요지
9	조천 신촌리	6	교통요지
10	제주대 박물관	6	개인 기증
11	구좌 김녕리	5	교통요지
12	대정 향교	5	교육(권학)
13	한림 동명리(명월성지)	5	방어진지
14	조천 대흘리	4	교통(동원)
15	도남동	3	
16	외도동	3	명소(월대)

수 및 보존의 의도로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져 온 비석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곳이 비석거리였던 곳은 아니다.

43) 제주향교 및 대정향교에는 향교 이건 및 보수, 흥학과 관련 깊은 목민관 비석이 다수 건립되어 있는데, 유독 정의향교에는 현재 조선시대 목민관 비석이 소재하고 있지 않다. 분명 정의향교와 관련 깊은 목민관 비석(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매비(埋碑)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44) 조천읍의 경우는 관문인 조천(포) 비석거리(8기) 외에, 일주도로상의 교통 요지[신촌리(6기), 북촌리(7기)]와 정의현으로 통하는 교통 길목[선흘리(2기), 와산리(3기), 대흘리(4기)] 등지에 다수 소재한다.

45) 한림읍의 경우는 명월진 만호 비가 6기[강만식, 강석오(2기), 강이구, 강이호, 양정훈]나 세워져 있어 타 지역 방어진지에도 만호가 있었을 터인데 선정비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별성이 두드러져 대비된다.

17	조천 와산리(운동장)	3	
18	한경 판포리사무소	3	교통요지
19	남원 남원2리(운주악)	3	교통요지
20	조천 선흘리(마을회관)	2	
21	성산 수산리	2	
22	표선 성읍리(일관헌)	2	관아
23	서귀 토평동	2	교통요지
24	안덕 서광리	2	
25	대정 안성리	2	관아
26	한림 동명리(마을회관)	2	
27	애월 구엄리	2	교통요지
소계(2기 이상소재)		137기	27 장소

<표 9>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1기 소재)

연번	비석(군)	수량	비고
1	오현단	1	목사 김정
2	화북포	1	목사 김정
3	조천 함덕리	1	목사 이원팔
4	구좌 김녕리	1	관관 서련
5	서귀 신호동	1	현감 송두옥
6	서귀 중문동	1	군수 채구석
7	대정 보성초교	1	목사 백희수
8	한경 면사무소	1	관관 고경준
9	애월 하가리	1	목사 한응호
10	한림 월림리	1	만호 강석오
11	추자 영흥리	1	군수 민창호
소계(1기 소재)		11기	11 장소

<표 10>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제주시)

구분	행정구역	상용호칭	수량
제주시 행정동(66)	일도2동	자연사박물관	11
	이도1동	삼성혈	7
		오현단	1
	삼도2동	제주목관아	11
	화북동	화북 비석거리	12
		화북 포구	1
	용담동	제주향교	11
	아라동	제주대 박물관	6
	외도동	월대	3
도남동	복지로9길 공원	3	
조천읍(31)	조천리	비석거리	8
	북촌리	비석군	7

	신촌리	비석군	6
	대흘리	대흘 교차로	4
	와산리	와산 운동장	3
	선흘리	마을회관	2
	함덕리	리사무소	1
애월읍(11)	애월리	리사무소	8
	구엄리	일주도로변	2
	하가리	애월농협 종합유통	1
추자면(1)	영흥리		1
구좌읍(6)	김녕리	비석군	5
	김녕리	김녕사굴	1
한림읍(8)	동명리	명월성지	5
	동명리	마을회관	2
	월림리		1
한경면(4)	판포리	리사무소	3
	신창리	한경면사무소	1
<b>제주시</b>		<b>소계</b>	<b>127</b>

<표 11> 제주 목민관 비석(군) 소재지별 분류(서귀포시)

구분	행정구역	상용호칭	수량
대정읍(3)	안성리	마을입구삼거리	2
	보성리	보성초교	1
안덕면(7)	사계리	대정향교	5
	서광리	-	2
서귀포시 행정동(4)	토평동	-	2
	신효동	-	1
	중문동	천제연폭포	1
남원읍(3)	남원2리	운주악 동편	3
표선면(2)	성읍리	일관헌	2
성산읍(2)	수산리	수산입구4거리	2
<b>서귀포시</b>		<b>소계</b>	<b>21</b>

## 2. 건비 소재지 분석

조선시대 목민관 비석(군)이 소재한 곳은 각각의 연원을 지니고 있다. 제주에서는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로 비석거리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 첫째, 육지와 제주를 이어주는 관문
- 둘째, 읍성 입구와 관아 및 교육기관
- 셋째, 유적과 명소
- 넷째, 군사적 요충지인 방어 진지

다섯째, 제주 전역을 순시하기 위한 교통 요지와 원(院)

예컨대 화북포, 조천포, 애월포 등은 이곳이 육지와 제주를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띠었기 때문에 비석거리가 세워졌다. 또한 화북, 조천 등에서 제주목으로 들어오는 동성 입구나 제주목관아의 경내 및 제주향교, 대정향교와 같은 (유학)교육기관에도 선정 및 흥학에 공이 있는 목사 기념비가 세워졌다.

여기에 삼성혈, 월대(외도동) 같은 제주의 유적 명소 등에 세우기도 했으며, 애월진 • 명월진 등 군사적 요충지인 방어진지에도 목민관 비석(군)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흘리(교차로)나 북촌·신촌 및 김녕, 의귀원(현재 운주약 동편으로 이진), 토평, 구엄 등 제주 목민관들이 순시차 일주하던 교통요지에도 목사 선정비가 세워졌다. 이처럼 제주의 목민관 비석(군)은 각각의 연원을 가지며 분포되어 있다.

한편 후세에 여러 이유로 형성된 비석군도 있는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목민관 비석(군)은 보존 및 파손된 비의 보수 등의 목적으로 한데 모아 놓은 것이다. 또한 개인이 수집, 소장하던 비석이 기증되어 목민관 비석(군)을 갖춘 곳도 있는데 제주대박물관이 대표적이다. 제주시 삼양동에서 사립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던 진성기씨가 2014년 비석을 포함한 모든 소장 유물을 기증하여 제주대박물관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 IV. 비제 분류 및 분석

### 1. 비제 호칭 분류

목민관 비석(군)의 비제 호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표현은 ‘흠민선정비’로 22기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선정비’(21기), ‘거사비’(19기), ‘칭덕선정비’(14기), ‘영세불망비’(11기)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 10기 이상의 비석에서 확인되는 호칭은 총 5종으로 87기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칭덕비’(6기), ‘기념비’(5기), ‘추사비’(4기), ‘흥학비’(4기), ‘존성애사비’(3기), ‘애민선정비’(3기)가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비석, 총 112기의 비제가 이상 11종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33종 33기의 비제까지 더하면 목민관 비석(군)은 총 145기가 44종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비제 불명의 비석 3종 3기도 있다.<sup>46)</sup>

한편 동일인의 다수 비석도 비제가 각각 달라서 지역마다 다르게 호칭하고 있다. 예컨

46) 비제 불명의 비석 3기는 이현공 목사비(제주향교), 김수익 목사비(조천비석거리), 강이구 만호비(명월성지)이다. 이현공 목사비는 하단부가 망실되었으며, 김수익 목사비는 하단부가 마모되었고, 강이구 만호비는 선정비라기 보다는 특정시기에 비각을 제작하였다는 내용(奧三年壬寅弟履築來此造閣)이 마치 비제 형식으로 새겨져 있다.

대 가장 많은 윤구동 목사(13기)의 경우 7종의 비제가 사용되고 있으며<sup>47)</sup>, 양현수 목사(10기)도 6종의 비제가 사용되고 있다.<sup>48)</sup> 따라서 특정 목민관에 대해 동일한 비제 호칭이 강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2>는 비제 호칭에 대해 수량 순으로 분류한 도표이다.

<표 12> 비제 호칭 분류(수량 순)

연번	비제 호칭	수량	연번	비제 호칭	수량
1	홀민선정비	22	6	청덕비	6
2	선정비	21	7	기념비	5
3	거사비	19	8	추사비	4
4	청덕선정비	14	9	홍학비	4
5	영세불망비	11	10	존성애사비	3
			11	에민선정비	3
10기 이상	5종	87	2기 이상	6종	25
1기	33종	33	불명		3
			총계	44종	148

## 2. 주제별 분석

이상 44종의 호칭을 분석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정비류(121기), 둘째, 권학비류(16기), 셋째, 기념비류(8기) 등으로 이상 총 145기이다. 선정비류는 총 일곱 가지 호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선정비로 끝나는 비 61기. ② ~거사·추사비 31기. ③ ~불망비 13기. ④ ~청덕비 7기.

⑤ ~시혜·유혜비 3기. ⑥ ~홀민·활민비 4기. ⑦ ~제폐·구폐비 2기

따라서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비제 호칭은 선정비 또는 홀민선정비와 같이 목사의 성명 아래 ‘선정비’라 표현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권학비류는 대부분 향교(제주향교, 대정향교 등) 등지에 건립된 비석이 다수를 이루는 데 홍학비, 애사비 등 학문

47) 윤구동 목사 총 13기의 비제 호칭은 청덕선정비 6기(제주목관아, 화북비석거리, 조천 선홀리, 와산리, 구좌 김녕리, 애월 애월리)와 홀민선정비 2기(외도동 월대 성산 수산리) 외에 청덕비(조천 북촌리), 청덕거사비(제주대박물관), 에민청덕비(애월 구엄리), 선정비(서귀 토평동), 설진거사비(애월 애월리)가 각각 1기씩 사용되고 있다.

48) 양현수 목사 총 10기의 비제 호칭은 선정비 3기(제주대박물관, 외도동 월대, 조천 신촌리)와 홀민선정비 2기(애월 애월리, 한경 판포리) 및 영세불망비 2기(제주목관아, 구좌 김녕리) 외에 기념비(삼성혈), 청덕홀민비(자연사박물관), 제폐비(제주목관아)가 각각 1기씩 사용되고 있다.



진흥 및 유생(선비) 우대를 표현한 비제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향교의 보수 및 이건 등과 관련한 비도 여기에 포함된다.<sup>49)</sup> 기념비류는 명소(삼성혈) 보존에 공이 많은 목민관 비석 호칭에 사용되고 있다.<sup>50)</sup> 다음의 <표 13>은 선정비류, <표 14>는 권학비/기념비류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표 13> 비제 호칭 분류(선정비류)

성격	비제	수량
선정비(61)	선정비	21
	홀민선정비	22
	청덕선정비	14
	애민선정비	3
	교민선정비	1
거사·추사비(31)	거사비	19
	거사대	1
	청덕거사비	1
	홀민거사비	1
	설진거사비	1
	추사비	4
	청백추사비	1
	영사비	1
	0사비	1
	추00	1
불망비(13)	영세불망비	11
	불망비	1
	청덕홀민만세불망비	1

49) 권학비류 총 16기는 다음과 같다. 흥학비(4기)는 제주향교의 심원택, 백낙연 목사비, 애월 하가리의 한응호 목사비, 오현단의 김정 목사비이다. 존성애사비(3기)는 대정향교의 박장복 목사비, 장시열 현감비, 송두옥 현감비이다. 이 외에 존성대사비(제주향교 김몽규 목사비), 존성권학비(대정향교 권극중 현감비), 송유우문비(제주향교 장인식 목사비), 애사비(대정향교 김재호 현감비), 대사비(제주향교 홍규 목사비), 입청금안비(제주향교 홍중징 목사비), 사학개건비(제주향교 이행교 목사비), 교궁수개비(제주향교 조희순 목사비), 이건향교비(심영석 목사비)의 호칭이 각각 1기씩 있다.

50) 기념비류 총 8기는 삼성혈에 있는 비석 4기(이수동, 이형상, 양세현, 양현수) 외에 서편 관관비(구좌 김녕리), 김정 목사비(화북포구), 채구석 군수비(중문 천제연), 김몽규 군수비(대정 안성리) 각각 1기가 있다.

청덕비(7)	청덕비	6
	애민청덕비	1
시혜·유혜비(3)	애민시혜비	1
	유혜비	1
	시혜비	1
홀민·활민비(4)	청덕홀민비	1
	홀민청정비	1
	지성진민비	1
	선진활민비	1
제폐·구폐비(2)	제폐비	1
	구폐석	1
<b>선정비류</b>	<b>총계</b>	<b>121</b>

<표 14> 비제 호칭 분류(권학/기념비류)

성격	호칭	비제	수량
권학비류	홍학·애사비(16)	홍학비	4
		애사비	1
		대사비	1
		존성애사비	3
		존성대사비	1
		존성권학비	1
		송유우문비	1
		이건향교비	1
		입청금안비	1
		교공수개비	1
		사학개건비	1
기념비류	기념비(8)	기념비	5
		기적비	1
		봉공비	1
		연무건정비	1
<b>권학/기념비류</b>		<b>총계</b>	<b>24</b>

## V. 비문의 유무 현황 및 분석

비문은 비양과 비음(음기)으로 나뉘는데, 비양은 비석 전면에 비음은 후면에 새겨놓은 글귀이다. 또 비양은 비제와 비명으로 나뉜다. 비제는 비석의 주인공과 치적 성격을 표기한 것으로 비의 앞면 가운데에 위에서 아래로 쓰여 있는데 예컨대 ‘사상윤공구동청덕선정비’를 가리킨다. 비명은 비석 주인공의 치적을 4언의 운문 형식으로 압축한 기록으로 역시 비의 앞면 좌우측에 새긴다. 비음은 비의 뒷면 또는 좌우측면에 비석 주인공의 생애와 업적을 산문의 형태로 기록한 글이다.

제주 전역에 산재한 총 148기의 목민관 비석 중 대략 절반 정도인 72기가 비명 및 비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산문의 형태로 비음(음기)이 새겨진 목민관비는 5기에 불과하며,<sup>51)</sup> 나머지 67기는 4언 등의 운문으로 목민관 치적을 새겨 놓고 있다.<sup>52)</sup> 특히 운문으로 기록된 비명은 4언 4구 형식이 절반이 넘는 42기로 다수이며, 4언 2구 15기<sup>53)</sup>, 4언 8구 7기<sup>54)</sup> 순으로 새겨 있다. 5언 2구 및 7언 2구의 비명도 각각 1기씩 있다.<sup>55)</sup> 다음의 <표 15>는 비문의 형식을 분류한 도표이다.

<표 15> 비문의 형식 분류

형식	운문					산문		미분류	총계
	4언 4구	4언 2구	4언 8구	5언 2구	7언 2구	비음 (음기)	비양		
수량	42	15	7	1	1	4	1	1	72
소계	66					5			

51) 비음이 새겨 있는 5기는 김정 흥학비(오현단), 윤계 목사비(제주목관아), 홍중징 청금안비(제주향교), 채구석 군수비(중문 천제연), 이최응 영상비(제주목관아)이다. 이 중 윤계 목사비는 비음이 아닌 비양에 산문 형식으로 새겨 있어 특이하다.

52) 엄밀히 말하면 66기이다. 한림 명월성지에 있는 강이구 만호비는 비석(비각) 제작 시기와 인물만 비제 형식으로 새겨 있기 때문에 4언 운문의 치적으로 볼 수 없다.

53) 4언 2구 단문의 운문이 새겨진 15기는 제주향교의 4기(심동신 어사비, 장인식 목사비, 백낙연 목사비, 홍규 목사비)와 대정향교 2기(박장복 목사비, 장시열 현감비), 명월성지 2기(강석오 만호비, 양정훈 만호비), 애월리사무소 2기(허명 목사비, 이의식 목사비), 양현수 목사비 2기[제주대박물관, 제주목관아(제폐비)] 외에 윤구동 목사비(서귀 토평동), 이현공 목사비(삼성혈), 강석오 만호비(한림 월림리)이다.

54) 4언 8구 장문의 운문이 새겨진 7기는 남원 2리에 소재한 3기(황구하 어사비, 위혁만 현감비, 신상흠 현감비)와 자연사박물관에 소재한 2기(구재룡선정비, 김영업 관관비) 및 백낙연 목사비(제주대박물관), 이원달 목사비(조천비석거리)이다.

55) 5언 2구는 삼성혈에 소재한 장인식 목사비이며, 7언 2구는 대정향교에 있는 김재호 현감비이다.

비문의 내용은 ‘청림 공정’<sup>56)</sup> 및 ‘폐단 척결’<sup>57)</sup>의 일반적인 선정<sup>58)</sup>을 칭송하는 문구가 31기, 흉년 등을 당해 ‘조세 감면’, ‘재정 출연’<sup>59)</sup>, ‘진휼’ 등을 칭송한 문구가 23기가 있어 다수를 차지한다. 즉 선정과 민생안정에 기여한 수령송덕비가 총 53기 건립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은 어디서든 지역의 수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석이 건립된 시기가 19C 세도정치기여서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갈 때 최소한의 업무 수행에도 선정비를 세우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명소(삼성혈) 보수·지원’ 7기, ‘향교 이건·건립’ 5기 등 수령기념비가 총 12기 건립되고 있다. 그밖에 ‘홍학’ 4기, 기타 2기<sup>60)</sup>의 내용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6>이다.

<표 16> 비문의 내용 분류

주제	선정		민생 안정			기념		홍학	기타	총계
	일반 선정	폐단 척결	재정 출연	진휼	조세 감면	향교 보수/이건	삼성혈 보수/지원			
수량	25	6	10	8	5	5	7	4	2	72
소계	31		23			12				

## VI. 목민관 비석(군)의 보존 및 자원화 방안

### 1. 필요성

옛 비석은 역사문화의 보고이다. 비석을 통해 시대상 및 그 지역의 역사적 연원을 파

56) 청림 공정의 문구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廉潔仁恕’(허명 목사비/에월리), ‘政平訟理’(강재의 관관비/제주목관아), ‘治理廉平’(위혁만 현감비/남원2리).

57) 폐단 척결의 문구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防弊戶還’(양헌수 제폐비/제주목관아), ‘籍弊咸蘇’(이원달 목사비/자연사박물관), ‘釐革弊癘’(강이호 만호비/명월성지).

58) 구체적인 선정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일반적인 선정 문구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三邑安堵’(이규원 목사비/화북비석거리), ‘恕政施仁’(양정훈 만호비/명월성지), ‘恩徧烏昧’(조희순 목사비/한림동명리).

59) 재정 출연의 문구로는 ‘捐俸防斂’(김기홍 관관비/제주대박물관), ‘捐廩恤民’(정기원 목사비/제주목관아), ‘捐出家財’(송두옥 현감비/서귀 신호동) 등이 있다.

60) 기타 2기는 수로 개척을 칭송한 채구석 군수비(중문 천제연)와 석각 제작 시기 및 인물을 새겨 놓은 강이구 만호비(명월성지)이다.

약할 수 있다. 제주에 부임했던 목민관 등 인물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비석에는 지역의 역사문화가 응축돼 있으며, 문헌자료를 보완하는 학술규명은 물론 인문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목민관 비석은 148기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에 부임했던 목사를 비롯해 관관과 현감 등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석마다 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하고 있어, 그 자체가 역사적 실증자료이자 인문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산재한 비석(군)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와 실태조사가 미진한 실정이다.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보존은 물론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에 소재한 목민관 비석 가운데 현재 화북비석거리와 조천비석거리 두 곳이 제주도기념물(제30호,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밖에 제주도 고비(41기<sup>61</sup>)도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12호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정향교와 조천 신촌리, 대흘리 등지의 목민관 비석(군) 및 명월성지의 만호비(군) 등 다수의 비석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비석(군)과 비교하여 그 역사적 의미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미지정 문화재로 남아 있어 그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석 대부분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훼손 마모가 진행되거나 파손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아직 지정문화재나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석(군) 중 그 중요성과 가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위적인 훼손이나 파괴의 위험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문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보존 및 자원화 방안

제주도 목민관 비석(군) 가운데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은 야외에 노출돼 있는 상태여서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 요인 침해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석은 특성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모나 멸실을 막을 수는 없다. 비에 새겨진 글자는 물론 비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보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목민관 비석을 반영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일이다. 탁본 및 사진 영상 촬영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작, 기록할 뿐 아니라 이를 DB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물론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는 비

61)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12호는 제주목관아, 제주향교, 오현단, 삼성혈, 제주대박물관(진성기 기증 이전의 삼양 민속박물관), 외도동 등지의 제주도 고비들이 지정되어 있다.

석(군)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제주의 소중한 1차 사료인 금석문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목민관 선정비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별, 학교별로 ‘목민관 비석 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을 만들거나 초중고 현장학습의 날 운영 등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마을 자체에서 혹은 학교별로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존 뿐 아니라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셋째, 지정 또는 미지정 목민관 비석(군) 전반에 대한 철저한 학술 고증을 통해 그 해설을 곁들인 안내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안내문이 설치된 경우에도 훼손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설문의 내용도 단순한 인물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48기 총 38장소에 대한 자세하며 쉬운 내용으로 통일된 문안의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지정 목민관 비석(군)의 경우는 대부분 비 자체만 존재할 뿐 안내문 등이 없어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선정비에 대해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선정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문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한 안내문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목민관 비석(군)의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목민관 비석 분포도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목민관 선정비 워킹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문관광자원과 역사교육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민관 비석은 제주도 전역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목민관 비석(군) 분포도를 제작하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선정비 특성별 혹은 지역별 분포상황, 특징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혹은 주제에 맞는 워킹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제별로 혹은 교육대상이나 답사코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 가이드북 발간 등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목민관 선정비는 많은 사실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에 관한 자료집이나 책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목민관 선정비가 고리타분하다거나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 주민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목민관 선정비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야 교육 자료는 물론 워킹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인문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현재 제주도내에는 올레코스를 비롯해 다양한 답사코스가 마련돼 있으나 대부분 자연경관 위주에 치우치고 있다. 선정비를 활용한 워킹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역사와 인물사, 마을 향토사 등을 결합한 ‘길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비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인문 자연자원 등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도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구축하고 마을의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에는 목민관 선정비가 자리하면서 비석거리라 불리는 곳이 있지만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목민관 비석은 곧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섯째, 지역의 초중고와 연계한 지역사 교육 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현장학습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향토사 바로알기 강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민관 선정비에 관한 이러한 교육,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제주사와 마을 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목민관 선정비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향토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직 사회에 대한 연계 교육 및 활용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목민관 선정비는 대부분 제주에 파견됐던 목사와 관관 등 관리들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에 관한 비석을 통해 지역사는 물론 당시 목민관으로서의 태도와 민을 위해 봉사했던 자세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공직자들에게도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목민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은 물론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Ⅶ. 맺음말

현재 전근대 제주사 연구는 문헌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1차 사료인 금석문을 통한 제주사의 고증, 보완, 사실 규명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와 분석’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첫째 제주도 전역의 목민관 비석(군)의 총량 파악 및 각급별(직위별, 수량별, 인물별, 시기별, 소재지별, 비제별 등등) 비교 분석, 둘째 비문의 정확한 글자 고증 및 해석과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어 2년여에 걸쳐 현지조사 및 자료 분석과 해석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목민관 비석은 총 69명, 148기로 파악되었다. 그 중 목사(사상) 선정비가 전체 목민관비석의 72%로 다수를 차지하며 관관 및 현감비는 10%이내에 그치고 있다.

제주 목민관 비석의 직위별 인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사 36명(106기), 관관 9명(14기), 현감 9명(13기), 군수 5명(5기), 만호 5명(6기), 여사 2명(3기), 기타 3명(3기). 또한

총 148기의 목민관 비석 중 1인 2기 이상은 23명으로 총 102기(69%)이고, 1인 1기는 46명으로 총 46기(31%)이다. 따라서 특정 목민관에 대해 제주 곳곳에서 중복된 비석 건립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순조 때의 윤구동 목사가 가장 많은 목민관 비석이 건립된 인물로 밝혀졌다(총 13기, 8.8%). 고종 때의 양헌수 목사(총 10기, 6.8%)가 그 다음이며, 현종 때 구재룡 목사와 장인식 목사는 각각 8기(5.4%) 남아있다. 철종 때 백희수 목사와 고종 때 정기원 목사, 백낙연 목사는 각각 6기가 남아 있어서, 이상 7명 목사의 비가 총 57기로 전체 목민관 비석의 38.7%에 해당한다.

한편 비면에 새겨져 있거나 해당 목민관의 재임 시기를 통해 추정하여 전체 목민관 비석의 시기별 분류도 파악되었다. 현재 제주도의 목민관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은 164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연 목사비(화북 비석거리)이며, 165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수익 목사비(조천 비석거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비면에서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민관비는 1662년에 건립된 권극중 현감비(대정향교)이다. 대다수 목민관 비석의 건립연대는 총 148기 중 85%에 해당하는 126기가 19세기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숙종부터 정조까지 18C 내내 강력하게 지방 수령들의 생사당 및 선정비 건립 금지 및 기존의 비석 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재지 별로 보면 148기의 목민관 비석(군)이 총 38장소에 분포되어 있다. 2기 이상의 비석(군)은 27장소로 137기(93%)가 있으며, 1기 비석이 소재한 곳이 11장소 11기(7%)이다. 가장 많은 곳은 화북비석거리(12기)이며, 제주목관아, 제주향교, 자연사박물관의 비석(군)이 각각 11기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제주시에 127기(86%), 서귀포시에 21기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비석(군)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로 비석거리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육지와 제주를 이어주는 관문. 둘째, 읍성 입구와 관아 및 교육기관. 셋째, 유적과 명소. 넷째, 군사적 요충지인 방어 진지. 다섯째, 제주 전역을 순시하기 위한 교통요지와 원(院)이었다. 이외에 보수, 보존의 차원에서 원소재지에서 옮겨진 비석(군)도 있었으며, 개인 소장 비석들이 박물관에 기증된 경우도 파악된다.

이들 목민관 비석(군)의 비제 호칭은 총 44종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호칭이 ‘홀민선정비’로 22기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선정비’21기, ‘거사비’19기, ‘청덕선정비’14기, ‘영세불망비’11기가 있어 총 10기 이상의 비석에서 확인되는 호칭은 총 5종으로 87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44종의 비제 호칭을 주제별로 분류하니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정비류(121기). 둘째, 권학비류(16기). 셋째, 기념비류(8기)이다.

제주 전역에 산재한 총 148기의 목민관 비석 중 대략 절반 정도인 72기가 비명 및 비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산문의 형태로 비음(음기)이 새겨진 목민관비는 5기에 불과하며, 나머지 67기는 4언 등의 운문으로 목민관 치적을 새겨 놓고 있다. 특히 운문으로 기록된 비명은 4언 4구 형식이 절반이 넘는 42기로 다수이며, 4언 2구(15기), 4언 8구(7기) 순으로 새겨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청렴 공정’ 및 ‘폐단 척결’의 일반적인 선정을 칭송하는 문구가 31기, 흉년 등을 당해 ‘조세 감면’, ‘재정 출연’, ‘진휼’ 등을 칭송한 문구가 23기가



있어 다수를 차지한다. 즉 선정과 민생안정에 기여한 수령송덕비가 총 53기 건립되고 있다. 그밖에 ‘명소(삼성혈) 보수·지원’ 7기, ‘향교 보수·이건’ 5기 등 수령기념비가 총 12기 건립되고 있다.

옛 비석은 역사문화의 보고이다. 비석을 통해 시대상 및 그 지역의 역사적 연원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에 부임했던 목민관 등 인물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비석에는 지역의 역사문화가 응축돼 있으며, 문헌자료를 보완하는 학술규명은 물론 인문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 소재한 목민관 비석 가운데 현재 화북비석거리와 조천비석거리 두 곳이 제주도기념물(제30호,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밖에 제주도 고비 41기도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12호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적 의미가 큰 목민관 비석(군)이 상당수 미지정 문화재로 남아 있어 그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아직 지정문화재나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석(군) 중 그 중요성과 가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목민관 비석(군)에 대한 다음의 보존 및 자원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 ○ 보존 방안

첫째, 목민관 비석을 반영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탁본 및 사진 영상 촬영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작, 기록할 뿐 아니라 이를 DB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목민관 선정비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별, 학교별로 ‘목민관 비석 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정 또는 미지정 목민관 비석(군) 전반에 대한 철저한 학술 고증을 통해 그 해설을 곁들인 안내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자원화 방안

첫째,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목민관 비석 분포도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목민관 선정비 워킹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문관광자원과 역사교육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별로 혹은 교육대상이나 답사코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 가이드북 발간 등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선정비를 활용한 워킹투어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 제주역사와 인물사, 마을 향토사 등을 결합한 ‘길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가 될 수 있다

넷째, 제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구축하고 마을의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의 초중고와 연계한 지역사 교육 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공식 사회에 대한 연계 교육 및 활용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본고는 목민관 비석(군)의 후속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며 마치고자 한다. 향후 다양한 성격의 비석(군)으로 조사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켜가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 내에는 목민관 비석(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비석들이 있다. 정려비(旌閭碑) 성격의 효자·열녀비, 여러 성격의 기념비, 입도조(入島祖) 묘비 등 고비들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비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목민관 비석(군)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 및 멸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나머지 제주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비석(군)으로의 조사연구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이들 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존 및 인문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사료

- 『노봉문집』 (김정)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 『조선왕조실록』
- 『증보탐라지』 (담수계)
- 『탐라지』 (이원진)
- 『탐라지초본』 (이원조)

2. 단행본

- 김익수, 『노봉문집』 (1,2), 제주문화원, 2001/2003.
-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이원진), 푸른역사, 2002.
- 김찬흡, 『제주사인명대사전』, 제주문화원, 2002.
- 북제주군, 『북제주군 비석총람』, 제주도 북제주군, 2001.
- 서귀포문화원, 『우리 고장의 비석들』 (1,2), 2009.
- 제주교육박물관, 『탐라지초본(상,하)』 (이원조), 2007.
-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82.
-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제주도마애명』, 경신인쇄사, 1999.
-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탐라지』 (담수계), 2005.
- 제주시, 『제주시 비석일람』, 2002.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의 옛터』, 1996.
- 한라산연구소, 『한라산의 마애명』, 2014.
- 현행복, 『방선문』, 도서출판 각, 2004.
- 현행복, 『취병담』, 도서출판 각, 2006.
- 홍순만, 『제주의 비』, 제주문화, 2013.

3. 논문

- 송기호, 「수령과 선정비」, 『대한토목학회지』, 59권(5호), 대한토목학회, 2011.
- 임용한,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 『한국사학보』 (26), 2007.
- 전영준, 「문화사교육 콘텐츠구성을 위한 금석문자료의 활용」, 『첨단문화기술연구』 (4호), 2008.
- 조동원, 「금석문의 역사와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 (55), 2006.
- 조동일, 「동아시아 금석문의 문화사적 의의」, 『관악어문연구』 (23), 1998.

홍대한, 「조선시대 칠비의 조영 연구」, 『한국기록학연구』 (24), 2010.

홍순만, 「비」 (연재 총 38회), 『제주신문』, 1978~1979.

홍순만,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 4. 홈페이지

고영철,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www.jejuhistory.c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222.grandculture.net/>).